

주일오후예배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이 주간의 말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느헤미야 8:17)

수요저녁예배

저녁 7시 30분

찬송 / 찬 64장, 찬 165장
개회기도 / 신장호 집사
교회소식 / 인도자
충보기도 / 다함께
설교 / 이동수 목사
부활에 대하여
(누가복음 20:27~40)
폐회기도 / 이동수 목사

감사와 기도 제목

법사에 감사합니다.

- 이성수 -

항상 함께하시고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수 정소명 -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 주일학교 사역자들(이정록, 박동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 원로목사 사모님 건강을 위해
- 건강 회복 위해 (이상열, 변경자, 이성수, 이미경, 이칠환, 권정혁, 김성호
김금자, 이송녀, 이정순, 서명종, 장옥자, 이동옥, 이영자, 이귀숙, 이광덕)
(뇌경색-이안자, 정효순, 서정기, 이동수 목사), (허리통증-권순자, 오정희)
(무릎수술회복-김홍식) (뇌혈관질환-임재운) (백내장수술회복-김순조)
- 교회 출석 위해 - 황승하, 이동석, 최희숙, 이승철, 박수억
- 영혼 구원 위해 - 손우현, 황영도, 이영훈, 김명신, 권오순
- 멀리 있는 친족 - 권기범(캐나다), 이하림, 손혁진(군복무), 손 (미국)
박정재(필리핀), 허정인, 송지명, 서승완, 박누리, 오현지
- 성도 사업 위해 - 이상열(석금당), 윤명철(개인택시), 이칠환(전세버스)
송익범(코리아머쉬룸), 김형수(into Spline), 정재학(월봉 정수기대리점)
이경주(제주다미안), 임재운(대청마루), 정소명(영어한스푼), 김희교(부동산파트너)
- 수능을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을 위해 (이지훈)
- 개척교회인 혁신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번 주 방송 안내

코로나 19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 생활을 위해 카카오 TV를 통해 교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시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방송시간	방송내용
8/24(월) 밤 8시	(본) 찬양이 있는 저녁 〈제4회〉
8/25(화) 오전 10시	(재) 주일오전예배실황
8/25(화) 밤 8시	(본) 구원 상담 세미나 〈제4강〉 구원 상담의 성경적 실례 I
8/26(수) 오전 10시	(재) 찬양이 있는 저녁
8/27(목) 밤 8시	(본) 성경 산책 - 출애굽기 개론과 출애굽기 19-40장 성서의 땅을 가다 - 유대 광야와 갈릴리 가나
8/28(금) 오전 10시	(재) 수요저녁예배실황
8/28(금) 밤 8시	(재) 구원 상담 세미나 (재) 성경 산책, 성서의 땅을 가다

- 방송 시청방법은 카카오톡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구원상담세미나 교재는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값 8,000원)

● 왜 이 교회는 개역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을 쓰나요?

킹제임스성경은 1611년 출간된 후로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성경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영어권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번역되지 않아 모든 교회가 개역 성경을 사용했지만, 2003년에 킹제임스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용 성경으로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왜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나요?

많은 교회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이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가톨릭교회가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조를 발전시켜 주후 750년경에 완성한 것으로, 세계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통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성경적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가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예배에 암송하지 않습니다.